



SMaRT ECO NOW



김익 대표이사

kohung@smart-eco.co.kr

EC PEF의 시범사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 개요

필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서 2013년 4월 9일에 발표한 녹색제품 단일시장화 계획(Single Market for Green Product Initiative)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PEF)에 대한 시범사업의 추진동향을 파악하고자 지난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5박 7일동안 벨기에 브뤼셀을 포함한 3개국 3개 기관을 방문한 바가 있다. 본 원고에서는 3개 기관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을 포함한 EC의 추진동향에 대해 요약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EC PEF 시범사업 동향

EC는 2013년 4월 9일에 발표한 녹색제품 단일시장화 계획의 일환으로 같은 해 5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PCF(Product Carbon Footprint) 포럼에서 2013년 5월부터 2차레에 걸쳐 진행될 시범사업부터 2020년에 제도 착수시점까지를 포함한 제도 전반의 추진 로드맵을 자세하게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PEF는 민간 인증기관에서 추진하는 제도가 아닌 공적인 제도인 만큼 대표성과 적용용이성, 기술적 타당성에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도출가능한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범사업을 당초 201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 11월까지로 늦어진다고 발표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초 계획	수정안
제도 도입시기	2020년까지	2021년까지
시범사업 완료	2016년까지	2017년 11월까지
PEFCRs 개발	25개	22개 * 문구용품과 커피는 추진 중단 * 수산품은 DB 불충분으로 추가 DB 개발 후에 재추진
영향범주	14개	14개 + α * 광물자원영향, 수자원영향, 토지사용 등 3개 영향범주는 수정 예정
표시방법	3개 영향범주에 대한 등급화	등급화 및 단일지수화 등을 검토 * 정규화, 가중화 인자 개발 중
제도 운영	EC에 의한 통합 운영	EC 및 개별 국가 운영 * 프랑스, 이탈리아는 개별 제도 운영 * 도안의 통합화는 아직 불명확

2.1 대표성 측면

EC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개발하는 PEFCRs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제품별로 구성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의 EU 역내에서 시장점유율이 누적으로 51%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발하는 25개 제품군 중에서 탈락한 일부 제품군은 시범사업 중간에 대표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존재한다. 그런데,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17년 12월부터는 신규 품목에 대한 PEFCRs을 개발해야 하는데, 매번 대표성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침개발의 보급확산이 어려워지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품군별로 제품에 표시할 대표 환경성 지표를 3개 도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시된 것이 해당 제품군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PEF Guide에서 제시한 14개 영향범주가 제품에 대한 모든 환경영향을 대표하는 것인지, 그리고 각 영향범주별 특성화 인자값이 대표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2 적용용이성 측면

제품의 전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산출해야 하기 위하여 관련 데이터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집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계산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가정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은데, 데이터의 품질요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지침에 따라 PEF를 산정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대두된다. 또한, 기능단위 정의과정이 기존의 ISO와는 달리 정의해야 할 항목이 다양하고 이들 항목이 일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시범사업 이전에 도출된 것이지만, EU에서 2013년 5월 4일에 고시로 발간한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9 April 2013 on the use of common methods to measure and communicate the life cycl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products and organizations'의 적용용이성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바, 2017년 11월까지 현재까지 진행된 PEFCRs의 개발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기존의 PEF 산정고시가 전면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2.3 기술적 타당성 측면

정규화(Normalization) 과정은 제품에 대한 환경성정보를 등급화하는 방법과 단일지수화하는 방법의 모두에 적용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계식의 분모에 들어가는 정규화 기준값(Normalization Reference Value)이 현재는 EU의 기준값을 활용하는데, 분자의 특성화 결과값(Characterization Results Value)은 전 세계의 환경영향을 종합한 값이므로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밖에 여러 사안에 대한 기술적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3. 양우 전망

이번 출장에서 EC PEF에 대한 시범사업의 추진동향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처음에는 EC가 당초계획보다 한발 물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출장기간 동안 3개 기관을 방문하면서 회의를 거듭한 결과, 시범사업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시기적으로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출발하겠다는 EC의 굳은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EU 역내에 PEF와 유사한 Type III 환경라벨링 제도의 운영기간은 각자의 독립적인 절차는 유지하되 산정방법은 PEF와 일관되게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일관된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PEF의 추진 방향성은 EU 역내에서 운영되는 Type I 환경라벨이 EC에서 운영하는 EU Flower가 존재하지만 각국별로 독자적인 인증제도가 운영되는 만큼 Type III 환경라벨링도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PEF의 추진동력을 높이기 위하여 2020년까지 EU의 발전전략인 Resource Efficient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Circular Economy에 대한 정책과 연계시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